대구여성가족재단
DAEGU WOMEN & FAMILY FOUNDATION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19. 7. 3
보도일자	2019. 7. 3
담당부서	정책개발실
담당자	김소정
전화	053-219-9969
e-mail	ksj@dwff.or.kr

「2019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」 발간
- 대구여성가족재단 성인지 관점의 대구여성 통계 발표 -

❑ 대구여성가족재단(대표 정일선)은 제5회 양성평등 주간(7월 1일 ~ 7월 7일)을 맞아 성인지 관점에서 대구여성의 삶을 영역별로 정리하여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「2019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」을 발간했다.

❑ 2015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은 대구여성이 어떠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 및 가구, 가족, 보육 및 교육, 사회참여, 건강 및 복지, 안전 및 환경, 문화 등 7개 영역에 대한 최신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성별 전국 평균과 7대 광역시의 비교를 통해 대구여성의 현황과 위치를 파악하였다. [※첨부자료 참고]

❑ 대구여성의 삶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매년 다른 주제로 스토리텔링과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있다. 2016년 <대구여성 평균 워킹맘, 나다움氏의 대구살이>, 2017년 <2030 대구청년여성, 나다움氏의 일과 삶>, 2018년 <50대 중년 여성, 나다움氏의 대구살이>에 이어 2019년은 <여성안전점검, 나다움氏의 안심 in 대구살이>를 주제로 124만명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대구는 얼마나 안전한지 점검해보았다.

❑ 그 결과 대구는 **'범죄'와 '생활안전' 분야에서 안전지역**에 속하며, **여성 관련 범죄가 7대 광역시 중 인구당 여성 피해자 수가 낮은** 것으로 나타났다.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첨부 : 2019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 [요약]

2019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 [요약]

[인구] 노령화 지수, 2035년엔 7대 광역시 중 2위 전망

○ 2018년 대구 여성인구는 1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.5%를 차지함. 대구 성비는 2018년 여성 1백명당 98.8명이며, 2035년에는 97.6명으로 소폭 낮아져 여성인구가 남성인구 보다 많아질 전망임

※ 성비는 여성 1백명 당 남성 수임. 성비가 1백명 이하일 경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상회함을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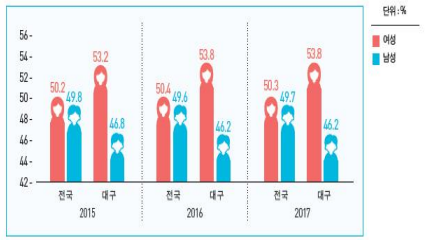
○ 2018년 대구 여성인구의 3명 중 1명은 40-50대임(40대 16.5%, 50대 17.7%). 특히 50대이상 여성인구의 비중은 2016년 38.9%(486,791명)에서 2018년 41.6%(517,185명)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○ 2018년 대구 총부양비는 36.8%이며, 그중 노년부양비는 19.7%로 유소년부양비(17.1%) 보다 높음. 2035년이 되면 총부양비가 69.0%로 대폭 증가하는데,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부양비는 50.8%까지 증가함. 부산(55.5%)에 이어 2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. 고령화 정도를 알려주는 노령화 지수는 2018년 114.9%에서 2035년 278.6%로 약 2.4배 정도 증가하여 7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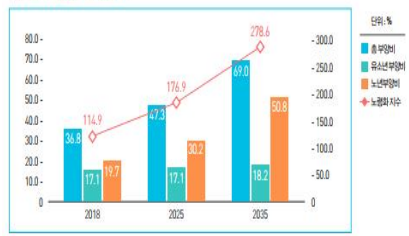
[가구] 2017년 4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, 그중 여성1인가구는 53.8%

○ 대구의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추세로, 2017년 4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(27.4%)였으며, 그중 여성 1인가구는 53.8%로 과반수를 차지함. 대구 여성 1인가구는 전국평균(50.3%) 보다 소폭 높으며, 7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(54.5%)에 이어 2번째로 높았음

<전국 및 대구 1인가구 비율>



<대구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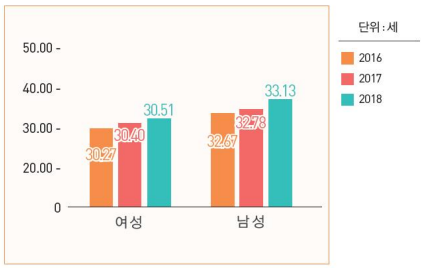
[가족] 2018년 대구 평균 초혼연령 남녀 모두 30세 넘어, 합계출산율 0.99명

○ 대구의 혼인건수는 2018년 1만967건으로 7대 광역시 중 4위로 중간 수준임. 대구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30.5세, 남성 33.1세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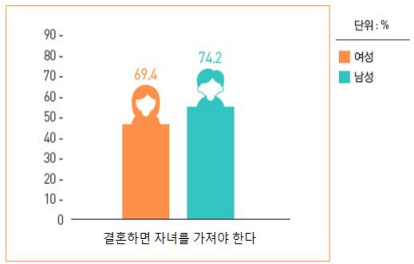
○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.07명에서 2018년에 사상 최초로 1명 밑인 0.99명으로 떨어짐. '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'에 대해 여성의 69.4%, 남성의 74.2%가 긍정적으로 인식함. 반면 여성의 30.6%, 남성의 25.8%가 부정적인 입장으로, 여성이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

○ 대구의 육아휴직자는 2018년 여성 4,580명, 남성 412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.7%, 59.7% 증가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. 대구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93명, 2017년 258명, 2018년 412명으로 증가해 2016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음. 그러나 아직까지는 7대 광역시 중 6위에 머물러 있음

<대구 평균 초혼연령>



<대구 자녀에 대한 태도(2018)>



[사회참여] 여성평균임금 남성의 63.5% 수준,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36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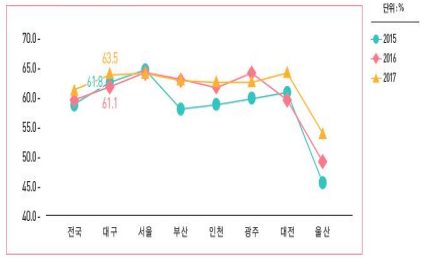
○ 2018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.3%임. 2016년 51.7%, 2017년 52.4%, 2018년 52.3%로 50%대에 정체되어 있음. 반면 남성은 2016년 72.6%, 2017년 70.6%, 2018년 70.0%로 하향추세임. 2018년 여성 실업률은 3.8%, 남성은 4.8%임

○ 2017년 대구여성 평균 임금은 173.7만원으로 남성 임금(273.7만원)의 63.5% 수준에 불과함. 대구여성의 평균 임금은 전국평균 181.1만원 보다는 적으나, 7대 광역시 중에서는 4번째로 중간 수준임(여성1위: 서울 198.8만원/남성1위: 울산 352.0만원). 남녀 임금격차는 2015년 61.8%에서 2017년 63.5%로 격차가 더 벌어졌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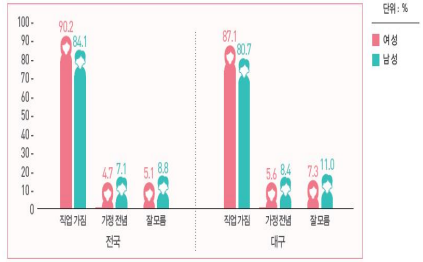
○ 대구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2018년 20.7%임. 경력단절 사유로는 '결혼'이 36.9%(33,084명)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는 임신·출산 29.6%(26,543명), 육아 24.2%(21,701명) 등의 순임

○ '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'에 대해서는 대구 대다수의 남녀가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(여성 87.1%, 남성 80.7%). 취업시기에 대해서는 '가정일에 무관하다'는 응답이 여성 61.4%, 남성 59.5%로 과반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

<전국 및 7대 광역시 임금격차>



<전국 및 대구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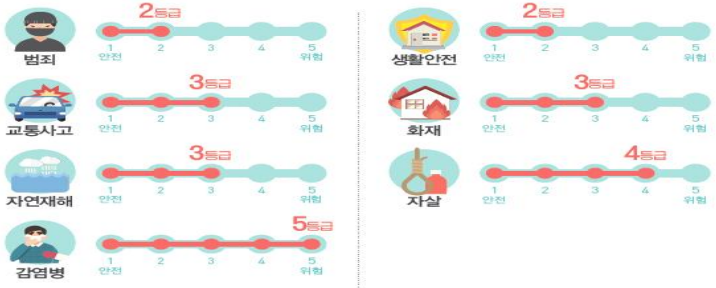


2019년 인포그래픽 주제 <여성안전점검, 나다움氏의 안심 in 대구살이>

[지역안전지수] 대구는 '범죄' 와 '생활안전' 분야에서 안전지역

○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.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계량화한 수치(1~5등급)임. 2018년 대구는 '범죄' 분야에서 2등급을 받음. **2017년 대비 1등급 상향**되었을 뿐만 아니라 **7대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(2등급)과 함께 가장 안전한 지역에 속함**

※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으로 갈수록 안전함을 의미함. 7대 광역시 중 1등급은 없음



[여성관련범죄] 대구는 7대 광역시 중 인구당 여성 피해자 수가 낮은 편

▪ 가정폭력

○ 2018년 기준 대구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는 대구 여성인구 10만명 당 84명으로 전국평균(105명) 보다 낮으며, **7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(80명)에 이어 2번째로 낮음**

○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며, 대구는 2018년 기준 여성 1,041명, 남성 226명으로 2016년 대비 각각 735명, 98명 감소함



▪ 성폭력

○ 성폭력 여성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며, 대구 성폭력 여성 피해자는 2018년 기준 1,145명인데, 대구 여성인구 10만명 당 92명으로 **전국평균(108명) 보다 낮으며, 7대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(85명)에 이어 2번째로 낮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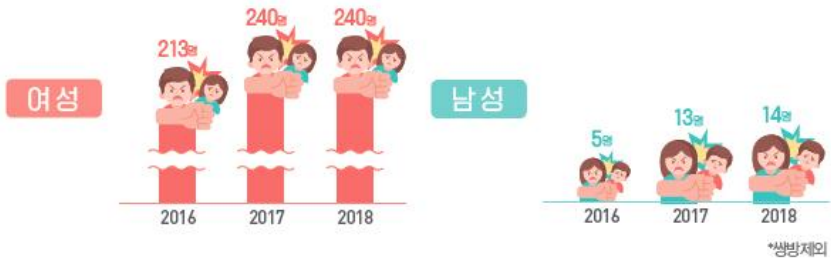
○ 여성 인구 10만명 당 피해자 수는 낮지만, 전체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94.1%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알 수 있음.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4명 중 1명꼴(25.7%)은 친구, 애인, 직장동료 등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함. 발생장소는 아파트, 주택이 21.0%로 가장 많음



▪ 데이트폭력

○ 2018년 기준 대구 데이트폭력 여성 피해자는 대구 여성인구 **10만명 당 19명으로 전국평균(38명) 보다 낮으며, 7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**

○ 대구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8년 291건임. 데이트폭력 여성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며, 대구여성 피해자는 2018년 240명임



▪ 불법촬영범죄

○ 2018년 기준 대구 불법촬영범죄 여성 피해자는 **대구 여성인구 10만명 당 14명으로 전국평균(18.9명) 보다 낮으며, 7대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(11명), 광주(14명)에 이어 3번째로 낮음**

○ 대구 불법촬영범죄 여성 피해자는 2018년 기준 176명임. 불법촬영범죄는 '모르는 사람'으로부터의 피해가 65.8%로 가장 많고, 발생장소는 아파트 주택이 16.2%로 가장 많음(기타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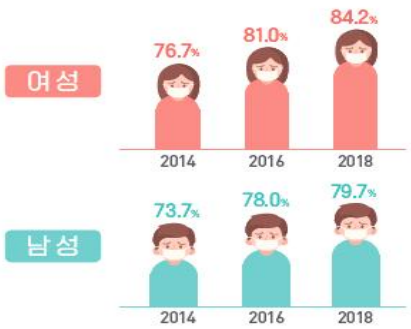


▪ 환경문제 인식

○ 대구여성의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은 증가추세로, 2014년 76.7%에서 2018년 84.2%로 7.5%p 증가해 여성의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음

○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면서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대한 찬성의견도 2018년 기준 여성 84.2%, 남성 79.7%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

〈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 〉



〈 환경보호 비용 부담(찬성) 〉



[여성안전망 구축 현황]

○ 지역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구시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및 대구지방경찰청, 대학교와 협업하여 2018년부터 「여성안전캠퍼스 환경조성 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음

○ 이 사업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데이트폭력, 불법촬영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포럼, 캠페인, 불법촬영 예방점검, 주민순찰,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여성안전망 구축 사업임

○ 또한 대학가 인근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에 안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○ 이외에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320회 실시하여 성폭력·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,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음. 그리고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, 보호시설이 20개소 설치·운영되고 있음













※ 2018년 이전 자료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하였음

대구여성가족재단(대표 정일선)은 대구광역시가 2012년 6월 5일 설립한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. 여성가족정책의 Think-tank로서,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여성이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